

에너지 유관기관 탄소중립 선언

지식경제부 산하 15개 에너지유관기관이 탄소중립(Carbon Neutral)을 선언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15개 에너지·자원 유관기관은 <탄소중립 선포식>을 개최하고, 에너지를 생산·공급·관리하는 기관이 먼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저탄소사회(Low Carbon Society) 실현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광해관리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참여했다.

에너지 유관기관의 탄소중립 선포는 8월20일 지식경제부의 탄소중립 선포에 이어 나온 것으로, 에너지주관 부처와 에너지 유관기관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먼저 생활화하고, 사회전반에 널리 온실가스 감축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참여하게 된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건국 60주년 행사를 탄소중립형을 개최한 후 여러 기관에서 탄소중립 선포가 이어져 왔으며, 15개 에너지유관기관의 탄소중립 참여를 계기로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홍보할 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단체 등에도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등 국가전반으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9/29>